

전주시, 핸드메이드시티로 승부수

20일 ~ 28일까지 핸드메이드시티 워크 행사 열어

전주시가 시민생활 속 깊이 뿌리내린 풍부한 우수한 전통문화와 생활문화, 공예문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와 경제의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는 핸드메이드시티로 나아가갈 것을 선언했다.<관련기사 5면>

김승수 전주시장과 오태수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15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핸드메이드를 일상적인 시민문화로 정착시키고, 손으로 만드는 수제작 산업의 활성화와 시장가치를 창출하는 핸드메이드 산업을 부흥시켜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전주는 전국 평균 1.7명에 불과한 무형문화재 보유자(인간문화재)가 45명이나 활동하고 있는데다 국립무형유산원까지 위치해있어 대한민국을 대

표하는 무형유산도시로 정평이 나있다.

시는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전주한옥마을 공예품전시관과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 등 전주 일원에서 전주에서 생산되는 수공예품과 전주시민들의 솜씨를 한자라에서 만날 수 있는 '전주 핸드메이드 시티 선포 및 워크' 행사를 열고, 시민들의 생활 속에 자리한 다양한 수공예품과 수공예(핸드메이드)의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수제작 문화의 산업화·대중화·세계화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특히 시는 '전주손길(Handmade in Jeonju)'을 슬로건으로, 주제전시와 테마전시, 위성전시, 공공영역 특화산업, 마켓 등 7개 섹션 13개 프로그램을

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를 통해 지방 등 핸드메이드 관련 인적 인프라는 물론, 문화와 산업시설 인프라, 도시 공간 인프라를 갖춰 핸드메이드시티로 성장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한옥마을 내 공예품전시관에서 열리는 △핸드메이드 도시와 삶 주제전시(20~28일) △동네순주제전시(20~28일) △월드페이퍼 전시(20~28일) △서포전시(20~28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진행되는 △전주메이드(20~28일) △디자인&크래프트 캠프(21~24일), 한옥마을 야외에서 펼쳐지는 △핸드메이드 정원(20~28일) △수제작공작소(20~28일) △전주핸드메이드 시티 프리마켓(24~28일), 전주 일원에서 펼쳐지는 △전주 핸드메이드 스퀘(20~28일) 등이다.

이를 통해 시는 △발견의 가치 △만드는 가치 △참여하는 가치 △변화의

가치 △꿈꾸는 가치 등 전주핸드메이드 시티의 신념과 가치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는 수제작의 정신을 살려 참여하고 나누는 공동체 문화를 회복시키고, 수제작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교육을 확대시키는 등 수제작 산업의 활성화와 시장가치를 창출하는 수제작 도시의 미래를 열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사람의 정성과 손길로 완성된 수제작(handmade)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과도 같다. 그 정신은 전주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의 품격 있는 도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와도 맞닿아 있다"면서 "전주의 운명을 바꿀 '살아 있는 손의 힘, 핸드메이드의 품격'을 믿는다. '핸드메이드 시티' 프로젝트는 전주 구도심 아시아 문화심장터의 핵심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하이트진로, 월드컵 티켓 기증

저소득·소외 계층 아동들에 1020만원 상당

하이트진로가 전주 시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오는 5월 20일 전주에서 개막하는 FIFA U-20월드컵 코리아 2017 대회 티켓을 선물한다. 하이트진로 전주공장 오재홍 전 북권역본부장은 15일 전주시를 방문하여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들이 전주에서 열리는 FIFA U-20월드컵을 관람할 수 있는 총 1020만원 상당의 티켓을 기증했다.

이번 티켓 기증은 지역기업인 하이트진로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FIFA U-20월드컵의 성공개최에 힘을 보태고, 소외계층 아동들이 경기 관람을 통해 미래 축구스타들을 미리 만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오재홍 하이트진로 전북권역본부장은 이날 "U-20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주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우리 하이트진로에서도 지역기업으로서 대회 성공을 기원하고 사회공헌에도 지속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오는 5월 20일 전주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개막전으로 문을 여는 이번 U-20월드컵 대회에는 최근 들어 티켓 판매 및 관련 문의가 증가하는 등 전주 시민들과 전국 축구 팬, 지역기업들의 관심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이는 전주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개막전을 포함한 예선 2경기와 성적이 따라 16강과 4강 등 주요경기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이다.

시는 대회 조 추첨이 예정된 오는 3월 15일 이후에는 전주에서 열리는 경기의 참가국과 대진표가 확정돼 티켓 판매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티켓 구매는 대회조직위 공식홈페이지(kr.fifa.com/u20ticket)를 참고하거나 전주 시 U-20월드컵추진단(063-281-6686)으로 문의하면 되며, 11이상 단체 구매 시 30% 할인 등 다양한 할인혜택도 제공된다.

/김영재 기자

'원자력 대신 신재생에너지 사용하자'

전주시, '에너지 자립 문화도시' 특별강연 개최

전주시가 저탄소, 저위험, 회복력 있는 에너지 자립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시는 15일 완산구 다가동에 위치한 '전주1924'에서 공무원들과 시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자립 문화도시 전주'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동아시아 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에너지 사용주체인 시민들과 함께 에너지 자립 도시로 나아가갈 것을 선언했다.

에너지 자립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날 특강에는 김익중 동국대학교 교수가 강사로

초청돼 '지속가능한 녹색공동체 전주를 위한 에너지 강연'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김익중 교수는 우리나라 핵 발전의 위험성 및 세계 탈핵 이슈 등을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녹색공동체 전주를 위한 원자력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역사상 최악의 원전사고 중 하나로 꼽히는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는 원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이웃나라인 대만을 비롯해 독일과 이탈리아, 벨기에 등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탈핵을 선언하고 있다"

면서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전기를 값싸게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자력 발전소를 증설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한국은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비율이 0.7%로 전 세계 꼴지 수준이다. 우루과이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비율이 84%로 세계에서 가장 높았으며, 미국 13%, 이란은 21% 등이다. 풍력과 태양광 등이야 말로 가장 안전한 에너지 자원이고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면서 "신진국처럼 풍력이나 태양광 이용을 시급히 늘려서 원자력을 대체해야 한다. 에너지에 대한 수요관리만 잘해도 탈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중소·벤처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설명회

전주시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키워나가기로 했다.

시와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이하 전주벤처촉진지구)는 15일 전주첨단벤처단지 내 지역혁신관에서 관내 중소·벤처기업 대표 및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기업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주벤처촉진지구는 올해 중소·벤

처기업의 기술, 경영,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사업은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 상품화를 위한 기술과 자금(업체당 최고 1500만원)을 지원하는 시제품제작지원사업 △기업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영 및 사업화인증 획득(업체당 최고 250만원)을 지원하는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인증지원사업 △우수 제품 보유 중소

기업을 선정해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방식으로 업체당 최고 3000만원을 지원하는 캐시-카우전문기업육성지원사업 등이다.

또한 △자금유치 전문인력을 양성해 적시적 자금조달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금유치/기업관리전문인력지원사업 △다양한 기업육성 모델 및 성공 기업의 성공사례 전파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혁신형기업교류회 지원사업 등도 추진된다.

/김영재 기자

'용돈이 궁해서...'

PC방 금고 텀 20대 아르바이트생 불구속 입건

익산경찰서는 15일 PC방 금고에 들어있는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아르바이트생 A(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6시32분경 익산시 부송동 한 PC방 금고에 들어있는 현금 165만2000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PC방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PC방 업주의 신고로 매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행을 확인하고 서울 강남의 한 은행 앞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금고 안에 든 현금을 보고 목심이 났다. 용돈으로 쓰려고 돈을 훔쳤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시,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전주시가 원도심 100만평 아시아 문화심장터 조성역사도심 기본계획 수립·추진·보행자 중심도시 등 시정 핵심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기술직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시는 15일 전주전통문화관 한벽극장에서 토목직·건축직, 녹지직 등 시산하 기술직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주시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의 구현을 위해 시정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도시, 건축, 건설 등 기술관련 분야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교육에 이어 앞으로 기술직 공무원 직무교육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과 별도로 자연스러운 토론을 통해 타 부서 업무를 공유하고 아이디어와 신규사업 발굴 등 시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높여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정책연구원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정책토론회도 구상하고 있다.

시는 특히 직무교육과 토론회를 통해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앞으로 추진되는 각종 도시개발 사업 등에 사담과 생태, 문화의 시정 핵심가치들을 담아낼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